

| 2011. 8. 15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이윤준

| 2011. 8. 15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이윤준

목 차

< 요약 >

I. 배경 및 필요성 / 6

II. 지역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 / 8

III. 국내 벤처기업 현황 / 10

IV. 지역별 벤처기업의 탄생 및 생존 분석 / 12

V. 중점 추진과제 / 16

「STEPI Insight」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약 〉

◆ 배경 및 필요성

-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
- 국내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은 심한 편임
- 따라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벤처의 육성이 필요함

◆ 지역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

- 벤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지역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등의 측면에서 벤처기업이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지역 내 특허출원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높고, 대학으로부터의 신기술 이전 대상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음

◆ 국내 벤처기업 현황

- 2000년대 초반 주춤하던 벤처기업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그림] 년도별 벤처기업 추이

-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은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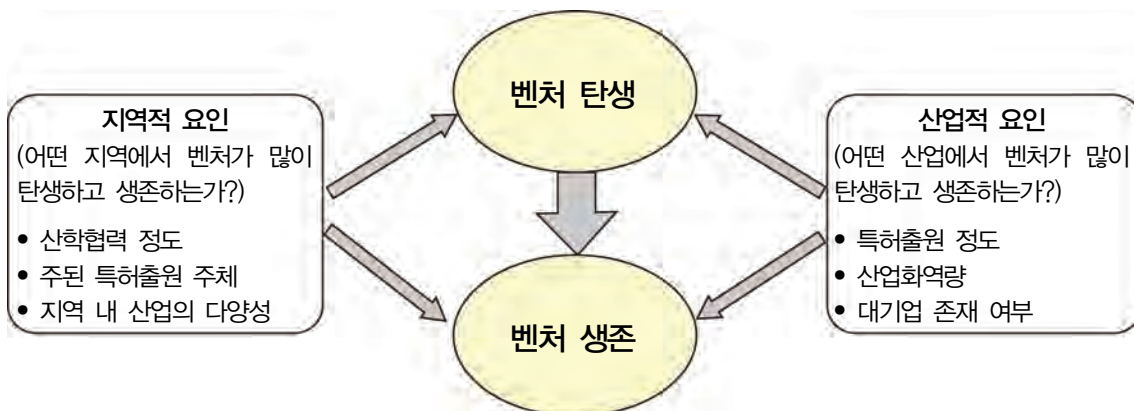
〈표〉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업체수	5,586	1,962	2,386	1,055	1,719	7,256	1,319	426	660	560	1,660	56
비중(%)	22.7	8.0	9.7	4.3	7.0	29.4	5.4	1.7	2.7	2.3	6.7	0.2

◆ 지역별 벤처기업의 탄생 및 생존 분석

- 지역벤처의 탄생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과 산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향요인 분석

[그림] 지역벤처의 탄생 및 생존 분석 모형



● 주요 결과

- 지역별로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오래 생존하는 산업분야가 상이함
- 대기업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형성이 양호한 지역·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기술이 많이 창출되고 창출된 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되는 지역·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분야의 특화보다는 다양성이 발현되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정책과제

과제 1

(중앙정부 역할) 지역별 산업분야의 특화에서 다양성
추구로 정책 전환

- * 지역사업 추진 및 선정 시 중복성보다는 지역의 혁신역량 및 산업기반과의 연관성에
보다 치중

과제 2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망 벤처 산업군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

- * 광주광역시의 경우 태양전지, LED, 방송통신 융합 분야 부품소재 기업 육성

지역차원의 대기업-벤처기업 상생협력 강화

- * 대기업과 함께 벤처기업 설립 등의 지원을 위한 ‘(가칭)상생금융’ 추진 등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 활성화

- *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신설 및 대학발 창업 자금 지원 등

I. 배경 및 필요성

■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

-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

- 미국은 1,600여개의 학교가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0여개의 기업가정신 연구센터를 운영

*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관건(막스플랑크연구소)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

- 벤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가 다시 주목 받는 것은 애플과 구글의 무선 통신 혁명,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 주도과 바이오, 태양광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때문임

* 미국 내 녹색기술 분야 벤처 투자 자금의 20% 정도가 실리콘밸리에 집중

■ 국내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은 심한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1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임

- 이들 매출 1천억 원 벤처기업은 GDP의 약 5% 정도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

- 그러나 벤처기업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함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벤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 비중은 57.5%에 달함

* 벤처기업의 지역별 비중 편차 : 경기(29.4%) ↔ 강원(1.7%)

-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지역차원의 접근은 부족함

- 녹색기술을 제2기 벤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벤처 투자 확대 및 회수 시장 활성화, 청년 기업가정신 고취 등이 주요 내용

■ 따라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벤처의 육성이 필요함

- 지식기반 경제체제 하에서는 자원과 역량이 집적된 광역경제권의 혁신역량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지역벤처의 육성이 필요함
 - 나아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벤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벤처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산업분야의 벤처가 많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II. 지역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

■ 벤처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는 지역의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이 높음

* 독일 310개 지역의 분석 결과 지역경제 성과에 지식자본과 기업가정신 자본의 축적정도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Audretsch 등, '08)

[그림 1] 벤처기업과 지역경제성과와의 관계



■ 벤처기업은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원동력은 지역 대학과 벤처기업임

* 지역 내 특허출원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의 2배에 달함(한국의 특허동향 2009 분석 결과)

*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등)의 특허 비중이 높은 것은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출연(연) 때문으로 대전을 제외하면 1.1% 수준임

〈표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체별 특허출원 비중 비교

지역	주체별 특허출원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	기타
수도권	52.2	21.4	2.5	1.4	21.6	0.9
비수도권	43.5	15.9	4.9	8.0	25.6	2.1

* 제조업체 내 벤처기업 비중은 7% 정도이나, 벤처기업이 대학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는 비중은 업체수 비중의 3배에 달함(2009 산학협력백서 분석 결과)

〈표 2〉 대학발 기술이전 대상별 비중 비교

대학발 기술이전 대상별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3.72	65.25	23.58

- 벤처기업의 주력 분야는 첨단제조 및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로 국가 신성장동력사업 분야와 일맥상통
- 벤처기업 업종 분류에 따르면, 일반제조업이 44.3%, 첨단제조 30.9%, 소프트웨어/정보통신 14.1%로 나타남
- * 첨단제조 : 에너지/의료/정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기기

[그림 2]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현황



자료: 20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Ⅲ. 국내 벤처기업 현황

■ 2000년대 초반 주춤하던 벤처기업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냄

- '1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24,645개에 달함
 - *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이 21,313개로 가장 많은 비중(86.5%) 차지
 - *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벤처가 18,485개로 가장 많은 비중(75%) 차지

[그림 3]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자료: 201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벤처기업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벤처기업은 매출 및 영업이익 면에서 기존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 수출액은 '05년 100억 불 돌파 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냄
 - * '10년 벤처기업 수출액은 158.5억 불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4% 차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매출 1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임
 - * 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기업 수 : 242개사('09년말 기준)

■ 그러나 벤처기업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은 심한 편임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벤처가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벤처 비중은 57.5%에 달하고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의 지역별 비중과 비교해 볼 때,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정도는 심각한 수준임

* 벤처기업 수도권 비중 : GRDP 수도권 비중 = 57.5 : 48.7

〈표 3〉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업체수	5,586	1,962	2,386	1,055	1,719	7,256	1,319	426	660	560	1,660	56
비중(%)	22.7	8.0	9.7	4.3	7.0	29.4	5.4	1.7	2.7	2.3	6.7	0.2

자료: 벤처기업협회

- 매출 1천억 원 벤처기업 역시 수도권 분포 비중이 53.3%에 달함
- 동남권 17.8%, 충청권 17.4% 순으로 많은 비중을 보임

[그림 4] 천억벤처의 지역별 분포



자료: 벤처기업협회

IV. 지역별 벤처기업의 탄생 및 생존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대상 벤처기업은 1998~2001년 사이에 설립된 벤처기업임
 - 이는 설립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과 생존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5년 생존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임
- 대상 지역은 16개 시·도로 함
- 대상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 분야
- 지역벤처의 탄생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과 산업적 요인을 중심으로 영향요인 분석

[그림 5] 지역벤처의 탄생 및 생존 분석 모형



2. 분석을 위한 가설설정 및 검증결과

■ 지역별 특성 비교를 위한 가설설정

- (가설 1) 클러스터가 발달한 지역·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함

- (가설 2) 대기업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형성이 양호한 지역 · 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가설 3-1) 기술이 많이 창출되는 지역 · 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생존
- (가설 3-2) 산업화 기반이 양호한 지역 · 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생존
- (가설 4) 분야의 특화보다는 다양성이 발현되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계량분석의 주요 결과

- 지역 내 클러스터가 발달한 산업분야의 경우 벤처기업 탄생에는 도움이 되나 벤처기업의 생존에는 약하나마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1은 기각
- 나머지 가설들은 계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므로 기각할 수 없음

〈표 4〉 결과 종합

가설	변수		벤처기업 수에 대한 영향	5년 생존율에 대한 영향
가설 1	지역내 산업특성	산업전문화도	약한 양(+)	약한 음(-)
가설 2	지역내 산업특성	대기업수	약한 양(+)	
가설 3-1	지역내 산업특성	특허수	강한 양(+)	
	지역내 산업특성	특허활동지수		
	지역특성	특허증가율		약한 양(+)
가설 3-2	지역내 산업특성	산업화역량		강한 양(+)
	지역특성	산학협력	양(+)	
가설 4	지역특성	산업집중도	강한 음(-)	
기타	지역특성	대기업특허점유율		양(+)
	지역특성	대학특허점유율	양한 음(-)	
	지역특성	벤처투자액	강한 양(+)	

* 주) 약한 양(+) 또는 약한 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양(+) 또는 음(-):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강한 양(+) 또는 강한 음(-):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3. 주요 시사점

■ 지역별로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오래 생존하는 산업분야가 다르게 나타남

- 수도권은 주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분야, 지방은 주로 기타특수목적기계 분야에서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
- 동일 산업분야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5년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데, 기타특수목적기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이며, 가장 낮은 생존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대구광역시임

〈표 5〉 지역별 최대 벤처기업 설립 산업분야

지역	최대 벤처기업 설립 산업분야
강원도	의료용기기
경기도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경상남도	기타특수목적기계
경상북도	기타특수목적기계
광주광역시	기타특수목적기계
대구광역시	기타특수목적기계
대전광역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부산광역시	일반목적용기계
서울특별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울산광역시	일반목적용기계
인천광역시	일반목적용기계
전라남도	기타특수목적기계
전라북도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주도	의약품제조
충청남도	기타특수목적기계
충청북도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 **대기업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형성이 양호한 지역 · 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지역 내 대기업을 존재하는 산업분야가 벤처 탄생에 유리한 분야임
- 대기업 특허점유율이 높은 지역의 벤처 생존율이 높다는 것과 결부하면, 특허 활동과 같은 혁신 성과가 활발한 대기업을 존재하여야 벤처 탄생 및 생존에 유리

■ **기술이 많이 창출되고 창출된 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되는 지역 · 산업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관련분야 특허가 많이 출원되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며, 특허증가율이 높은 지역 즉, 최근의 혁신성과가 두드러진 지역에서 벤처기업들이 보다 오랫동안 생존함
- 산학연 협력연구가 활발한 지역, 산업화역량이 우수한 지역 내 산업분야에서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함

■ **분야의 특화보다는 다양성이 발현되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오랫동안 생존**

- 1~2개 산업분야에 특화된 지역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산업이 분포하는 지역이 보다 많은 벤처기업을 탄생시킴
- 전혀 관계없는 비관련 다양성이 아닌 관련 다양성이 중요
 -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태양전지산업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등이 좋은 사례

V. 중점 추진과제

과제 1

(중앙정부 역할) 지역별 산업분야의 특화에서 다양성 추구로 정책 전환

■ 16개 시·도별 혹은 광역경제권별로 분야를 특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이 자리잡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 전환

-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관련 다양성이 아닌 관련 다양성 추진
 - 다양성 추구는 산업의 녹색화 및 융·복합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부합
 - * 반도체 장비산업에서 태양전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농·수산업과 선박산업에서 풍력터빈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덴마크 등이 좋은 예
- 지역사업 추진 및 선정시 지역별 중복에 대한 기준 완화
 - 중복에 대한 기준 완화와 더불어 지역 혁신역량 및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관성에 보다 많은 가중치 부여

■ 지자체 주도의 자율기획사업 신규 추진

- 지역 수요와 역량에 기초한 지자체 주도의 포괄·위임 R&D예산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지자체가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 일본은 지역재생제도를 통해 지방 스스로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과제 2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망 벤처 산업군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

■ 지역별 유망 벤처 산업군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특허 출원이 활발하고 출원된 특허가 사업화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양호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존재하여 양호한 가치사슬 형성이 용이한 산업분야가 유망 벤처 산업군임

〈표 6〉 지역별 최대 벤처기업 설립 산업분야

광역시	유망 벤처 산업군	관련 신성장동력 분야
광주광역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태양전지, LED, 방송통신 융합
대구광역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타 조립금속 제조업,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 정밀기계 제조업	로봇응용, 차세대디스플레이, 선박·해양시스템
대전광역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태양전지, 차세대반도체, 의료기기
부산광역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린카, CCS
울산광역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해양바이오, 신소재나노융합
인천광역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	차세대반도체, 연료전지, 그린카

-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정부는 유망 벤처 산업군 중심의 부품소재 기업 육성에 주력
 -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 및 지원도 유망 벤처 산업군 중심으로 추진

지역차원의 대기업-벤처기업 상생협력 강화

■ 수요기업과 부품소재 기업간 공동 R&D

- 부품소재 기업과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공동 설계 및 기술개발 추진
 - 정부는 지역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및 장비 지원

- 성과공유제 확대를 통해 대기업·지역벤처 상생협력 추진

*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선부는 '06년 협력업체인 삼우기계와의 기술협력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시행을 통해 53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둠

- 수요기업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와 R&D 지원을 연계하는 '수요기업 투자연계형 기술개발 사업' 추진

■ ‘(가칭)상생금융’ 조성 추진

- 정부가 대기업 등과 함께 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벤처기업 설립 등의 지원을 위한 ‘(가칭)상생금융’ 추진
 - 벤처 창업 지원, 해외 부품소재 기업과의 M&A 지원 등에 주력
 - 대기업과 금융권이 공동으로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
 -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10년 신규투자금액은 10,910억 원
 - * M&A를 통한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추진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는 3,000억 원 규모의 ‘부품소재 해외 M&A 펀드’ 조성('09년 말)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 활성화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과정 신설 및 강화

- 석사 학위과정(2년)으로 학제 간 연구 수행
 - 첫 번째 해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두 번째 해에는 기업 설립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 우수 아이디어는 실질적으로 기업 설립 추진 지원
 - 2년째 교육과정인 기업 설립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 검증프로세스를 거쳐 선별된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 설립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화 추진
 - *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경우, 기업가정신 트랙이 처음 만들어진 2000년 이래로 기업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2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음

■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지역대학 차원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공공펀드로부터 다양한 자금지원 (대출 또는 보조금) 확대
 - * 스웨덴 대학은 정부와 공공펀드(Innovation Bridge 등)로부터 대출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업설립과 자본 투자 등을 수행함
- 투자 운용회사 설립을 통해 대기업 및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
 - * 동경대는 벤처캐피탈 운용회사인 UTEC을 '04년 설립하여 대기업 및 벤처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1호 펀드의 조성액은 83억 엔)

참고문헌

벤처기업협회(2010), 「201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이윤준(2010), “국내 벤처기업의 상장의도에 따른 IPO 전략”, 「중소기업연구」, 32(2), pp.189~208.

임채운 외(2008), 「벤처기업의 생존 영향요인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특허청(2010), 「한국의 특허동향 2009」.

한국연구재단(2010), 「2009 대학산학협력백서」, 교육과학기술부.

Audretsch, D. B., et. al. (2008), “Entrepreneurship capital and its impact on knowledge diffusion and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pp.687~698.

Bell, G. G.(2005), “Cluster, networks, and firm innovativenes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 pp.287~295.

Cooke, P.(200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lean technology and Jacobian cluster-platform policies”, *Regional Science Policy and Practice*, 1(1), pp.23~45.

Yoon-Jun Lee and Jeong-Dong Lee(2008), “Strategy of start-ups for IPO timing across high technology indus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15, pp.869~877.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venture.or.kr/kova/statistics/statistics1.jsp>).

STEPI Insight 보고서 리스트

- 제76호 : 2019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75호 : 2018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74호 : 2017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73호 : 2016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72호 : 2015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71호 : 2014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70호 : 2013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2011.5.1)
- 제68호 : 2012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7호 : 2011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6호 : 2010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
- 제64호 : 2009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3호 : 2008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2호 : 2007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1호 : 2006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60호 : 2005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2010.12.1)
- 제58호 : 2004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7호 : 2003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6호 : 2002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5호 : 2001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4호 : 2000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3호 : 1999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2호 : 1998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1호 : 1997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50호 : 1996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9호 : 1995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8호 : 1994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7호 : ‘2019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6호 : 1993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5호 : 1992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4호 : 1991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3호 : 1990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2호 : 1989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1호 : 1988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40호 : 1987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39호 : 1986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38호 : 1985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37호 : 1984년 STEPI Insight 보고서
- 제36호 : 1983년 STEPI Insight 보고서

STEPI Insight 보고서 리스트

제35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34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
제33호 :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정책 과제
제32호 :	디지털 전환(DX)의 성공을 위한 조직 문화
제31호 :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공유경제
제30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9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8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7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6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5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4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3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2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1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0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9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8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7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6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5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4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3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2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1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0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9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8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7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6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5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4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3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2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제1호 :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Leading Think Tank”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 이윤준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센터 부연구위원
(E-mail: caelee@stepi.re.kr / Tel: 02-3284-1827)

· 주요경력 ·

2006-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2005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
1993-2001 호남석유화학(주) 대덕연구소

· 주요연구실적 ·

이윤준(20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윤준(2010), 동남권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부산테크노파크.
이윤준(2009),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연구, 광주시청.
이윤준(2010), “국내벤처기업의 상장의도에 따른 IPO 전략”, 중소기업연구.
이윤준(200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 전략”, 기술혁신연구.
Yoon-Jun Lee(2010), “Technology Strategy by Growth Stage of Technology-based Venture Companies”,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Yoon-Jun Lee(2010), “Identification of Technology Transfer Options Based o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Yoon-Jun Lee(2008), “Characteristic Features of Valuable Patents: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firm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Yoon-Jun Lee and Jeong-Dong Lee(2008), “Technology Strategy for Enhancing the Public-to-Private Technology Transfer: Evidence from the duration of patent”, Applied Economics.
Yoon-Jun Lee and Jeong-Dong Lee(2008), “Strategy of Start-ups for IPO Timing across High Technology Indus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 STEPI Insight 제76호 ::

| 발 행 인 | 김석준

| 편 집 인 | 김석준

| 발 행 일 | 2011년 8월 15일

| 발 행 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서울라09680

| 주 소 | 156-849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 27F

| T E L | 02)3284-1819

| F A X | 02)849-8017

| 인 쇄 처 | 경성문화사(T:02-786-2999)

